



간추린 청렴 소식

[1] 서울중앙지검, '청·포·도 사진 공모전' 개최

청렴의 이미지를 담은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품을 전시·관람하며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청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청렴 가로세로 퀴즈, 자신의 소망을 담은 청포도나무 만들기, 참여직원에게 청렴포춘퀴지와 청렴비누 증정 등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 안산지청, '청렴 N행시 공모전' 개최



청렴과 관련 있는 제시어로 N행시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된 당선작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등 안산지청의 청렴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안'개를 걷어내는 태양처럼, '산'불을 잠재우는 소나기처럼, '지'금 마음 속 작은 부정을, '청'렴한 우리의 손으로 지워버리자.

[3] 고양지청, '청렴칭찬 릴레이' 실시

기관장을 시작으로 청렴칭찬 릴레이를 실시, 그 사례와 대상자 사진으로 '청렴칭찬나무'를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모습을 보임
늘 밝고 긍정적으로 민원인 및 구성원들을 대함

[4] 인천지검, '청렴돌발퀴즈' 실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집중 숙지 기간을 설정하여 행동강령 숙지 후, 전 직원 대상 청렴돌발퀴즈를 실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참여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청렴에 대한 관심도는 높이며 행동강령 숙지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칭찬합니다

2021년도 2분기 클린콜 우수 직원 선정

'21. 7. 15. 대검 감찰부에서는 일선 청 클린콜 조사 대상 업무 *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활동 우수 직원 4명을 선정하고 격려하였습니다.

* 기록열람등사, 압수물 가환부, 기소중지 재기, 범죄피해자지원

의정부지검 윤OO

부산서부지청 강OO

김천지청 손OO

논산지청 김OO

아래는 클린콜 민원인 칭찬의견 중 일부입니다.



☺ 담당직원이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주고 편안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이제껏 검찰은 문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이번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 中

나에겐 관대하고 친절했던 세상이,
강단이에겐 삭막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보이는 풍경이 다른 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인생에 나눠질 수 없는 짐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린다.
나는 조금이라도 당신의 짐을 느껴보겠다고 애쓴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하고,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 은호(이종석)가 하는 독백입니다.

익히 들던 억지사지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부서장과 부서원, 담당자와 문의하는 사람, 직원과 민원인, 동료들과의 관계 등 모든 곳에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보고 느끼는 풍경은 다를 수 있음을 늘 인지하고 귀 기울이려고 노력한다면, 모든 상황이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청렴 상식이 쑥쑥!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깨진 유리창 이론 (Broken Window Theory)



구석진 골목에 상태가 비슷한 두 대의 자동차를 보닛을 열어둔 채, 차량 한 대에만 앞 유리창을 깨어 놓은 상태로 일주일간 방치합니다. 일주일 뒤 보닛만 열어둔 차량은 일주일 전과 동일한 상태였고, 앞 유리창을 깨어둔 자동차는 방치된 지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하루 만에 네 바퀴의 휠이 없어지는 등 폐차 직전으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뉴욕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뉴욕의 치안은 최악의 상태였고, 여행객들 사이에서 '뉴욕에서 절대 지하철을 타지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뉴욕 지하철은 더럽고 심각한 무법상태였습니다.

뉴욕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뉴욕시 정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뉴욕 지하철 내부 벽의 낙서를 지우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서지우기를 시작하면서 지하철의 흉악 범죄 발생률이 주춤하기 시작하더니, 1995년에는 지하철 중범죄 발생 건수가 75%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리의 낙서를 지우고, 보행자의 신호 무시나 쓰레기 투기 등의 경범죄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시행하면서 뉴욕시의 범죄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범죄도시 뉴욕이라는 오명을 벗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소한 무질서가 점점 커져 바로잡기 어려운 심각한 무질서 상태를 만듭니다. 사소한 무질서는 바로 잡기 쉽지만, 완전히 무너져 버린 뒤에는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깨진 유리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구성원이 되어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나무는 주로 습지에서 숲을 이루고 있으며, 뿌리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뿌리의 일부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탄소 흡수량이 월등해 기후변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등 지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나무**는 무엇일까요?

- ① 맹그로브나무 ② 올리브나무 ③ 수양버들나무

※ 힌트 : Monthly청렴 2021년 7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1. 8. 20.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7월 정답은 ② 10일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축!
당첨

이00(서울동부), 이00(여주), 임00(대검),
양00(제주), 유00(안양), 김00(부산고검),
안00(청주), 임00(천안), 조00(제천), 김00(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고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귀찮은 표정을 지으며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이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상대방은,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조금 바쁘더라도 질문에 친절히 답변한다면 민원인도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서류 하나 발급 받으려면 잘 몰라서 어려움이 많은데, 설명도 아주 상세히 잘해주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이런 곳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담당자분께 감사하고 고맙다고 전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대구서부지청 열람등사(확정등) 담당자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은 민원인 의견입니다♪



신뢰받는 공정한 국민증심 검찰